

감사인의 특성과 회계정보의 시계열적 비교가능성

김정택*

요약

회계정보의 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이하 ‘회계일관성’)은 회계실무와 이론 모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기업의 상이한 기간에 일어난 동일한 경제적인 사건이 동일한 회계수치로 표출되는 정도’로 회계일관성을 정의한 후 (1) 특정 기업의 회계일관성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2) 회계일관성이 감사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국내 상장기업의 2004-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은 양(+)의 관련성을 가졌다. 이는 다른 기업과 비교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회계수치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일관성 측정기간에 걸쳐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피감사기업은 그렇지 않은 피감사기업보다 회계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감사인이 계속감사를 하면 이 감사인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예상과 일치한다. 셋째, 계속감사를 한 감사인이 고품질감사인(Big4 또는 산업전문감사인)인지 여부는 회계일관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발견은 (감사인의 품질이 아닌) 동일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았는지 여부가 회계일관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 감사인, 감사품질, 회계일관성, 비교가능성

* 제1저자,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jtkim01@dankook.ac.kr

<논문 투고일> 2023.10.26 <논문 수정일> 2023.12.03 <게재 확정일> 2023.12.12

I. 서론

회계일관성(accounting consistency)은 회계실무와 이론 모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이다. FASB 재무회계개념체계 No.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일관성을 “상이한 연도 사이의 동일한 회계정책과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로 정의하면서,¹⁾ 일정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회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숫자가 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속성의 하나라고 기술한다. 실제로 기업에서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역시 회계이익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회계일관성을 들고 있다. 예들 들면 Dichev et al.(2013)이 각 기업의 CFO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상이한 기간 사이의 회계정책의 일관성이 이익의 품질을 높인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회계일관성은 회계정보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그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실증조사를 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일부 연구는 특정 항목과 관련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이 이익의 품질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Healy et al. 1987; Keating and Zimmerman 1999). 본 연구는 특정 항목에 국한하여 회계일관성을 정의한 이들 선행연구의 보완 및 확장으로 회계일관성을 특정기업의 상이한 기간에 일어난 동일한 경제적인 사건이 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회계수치(이익)로 표출되는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특정 기업의 시계열적 일관성은 상이한 기업에 일어난 동일한 경제적인 사건이 기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회계수치로 표출되는 정도로 정의되는 De Franco et al.(2011)의 횡단면적 비교가능성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De Franco et al.(2011)은 비교가능성을 상이한 기업사이의 횡단면 관점에서 추정하는 반면에 본 연구는 회계일관성을 특정 기업 내에서 상이한 기간의 시계열 관점에서 추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특정 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회계일관성 측정치가 선행 연구에서 조사한 바 있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2) 특

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2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정 기업내에서의 회계일관성이 감사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 중 감사인과 회계일관성 사이의 관계 조사는 다시 다음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동일 감사인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변경이 발생한 피감사기업 사이에 회계일관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고품질의 감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Big4 감사인이나 산업전문가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이나 비전문가 감사인에 비해 피감사기업의 회계일관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회계정보의 시계열적 일관성과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은 재무제표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 두 속성이 실무에서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두 속성이 모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주장을 감안할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재무보고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감사인 또한 재무제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nnox et al. 2018).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에 있어 감사인의 역할을 조사한 Francis et al.(2013)은 동일한 감사인이 상이한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감사인들이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이 특성이 상이한 고객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Francis et al.(2013)의 발견은 상이한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일한 기업 내에서 상이한 연도에 대해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감사인은 자신의 고유한 감사업무방식을 동일한 기업의 연속감사기간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기업의 회계정보가 시계열적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고품질의 감사인(Big4 또는 산업전문가감사인)과 회계일관성의 관계 또한 실증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Big4 감사인은 고객의 수가 많아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및 국제적 제휴로 인해 회계논점과 환경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non-Big4 감사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전문가감사인 또한 누적된 경험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특

정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업종에 고유한 회계기준과 이들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비전문가보다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고품질감사인은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유인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인식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회계일관성을 저해하는 시도를 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장은 Big4 감사인 또는 산업전문가 감사인과 회계일관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회계기준의 위배는 아니기 때문에 감사인의 품질이 피감사기업의 회계일관성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하면 감사인의 품질이 피감사기업 회계정보의 시계열적 일관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실증연구 주제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2004-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과 비교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회계수치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일관성 측정기간에 걸쳐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피감사기업은 그렇지 않은 피감사기업보다 회계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감사인이 계속감사를 하면 대체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직관과 일치한다. 셋째, 계속감사를 한 감사인이 고품질감사인인지 여부는 회계일관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회계일관성의 핵심요소는 동일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았는지 여부일 뿐 해당 감사인이 고품질감사인인지 여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고품질의 감사인이 회계정보의 질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의 발견에 미루어 본 연구의 발견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실무자나 규제당국 모두 회계일관성이 회계정보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품질감사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발견이다.

본 연구는 회계일관성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중요한 질적 속성이면서도 그간 상호 간의 관련성이 조사되지 않았던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또한 감사인의 품질이 회계일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최초로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측정치를 활용하여 회계일관성의 결정요인 또는 회계일관성을 실험변수로 활용하는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향후 전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III장은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IV장은 실증분석결과를 기술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결론을 통해 연구를 맺는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1. 회계일관성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의 품질에 있어서 시계열적 일관성은 중요한 속성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회계변경의 효과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회계정책이나 추정의 변경과 같이 특정 계정과목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Healy et al.(1987)은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화와 CEO 보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이익을 줄이거나 높이는 회계변경이 보상과 체계적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들은 보상이 감가상각방법 변경 전의 이익이 아니라 변경 후의 이익에 근거해 지급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영자들이 보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Keating and Zimmerman(1999)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기업들의 향후 성과를 조사하였다. 동 연구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 기업에 비해 향후 성과의 하락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회계변경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 이준규와 신승묘(2003)는 감가상각방법 변경 전의 수익성이 클수록, 또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효과가 클수록 누적초과수익률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또한 전기대비 당기순

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누적초과수익률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가 일관성을 특정항목의 회계변경을 사용해서 조사한 것에 비해 최근 Peterson et al.(2015)는 동일기업 및 상이한 기업간의 회계일관성을 기업이 SEC에 제출한 10-K 중 회계정책 관련 주석의 문장유사성(textual similarity)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들은 회계수치의 기간 간 일관성이 회계정보 품질의 대용치로 널리 사용되는 지속성, 예측가능성, 발생액의 품질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회계변경을 사용한 연구들의 초점은 경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일관성을 저해하는 회계변경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있다.

2. 동일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에 대한 연구

선행연구는 동일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과 감사인은 상호 밀착되는 관계(bonding)가 형성되는데 이 밀착이 회계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로 인해 명확하지 않고 실증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한 감사인이 동일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감사하면 이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따라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고품질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Chung and Kallapur 2003; Myers et al. 2003). 반면에 일부 연구들은 계속감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이들 사이에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오히려 이익의 품질이 손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avis et al. 2009; Chu et al. 2012). 최근 연구는 감사기간과 이익의 품질 사이의 관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Gul et al.(2009)는 산업전문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계속감사기간과 이익의 품질 사이의 양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Li(2010)은 둘 사이의 양의 관계가 중요성이 큰 피감사기업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감사기간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피감사기업의 회계일관성이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 감사법인은 저마다 고유한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이 피감사 기업의 경제적인 사건을 회계수치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은 회계숫자는 상이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회계숫자에 비해 시계열상의 일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품질 감사인에 대한 연구

DeAngelo(1981)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실패로 인한 명성의 훼손을 우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분석을 근거로 Big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non-Big4 감사인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구체적으로 Becker et al.(1998)은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에 비해 경영자의 상향 이익조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rancis et al.(1999)도 나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ig4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유의하게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는 Big4 감사인의 고품질 감사가 Big4 감사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Balver et al.(1988)는 Big4 감사인이 신규상장가의 할인폭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품질의 감사가 부채조달비용을 낮춘다는 연구도 존재한다(Blackwell et al. 1998; Pittman and Fortin 2004). 한편, 고품질 감사인의 또 다른 대용치로 산업전문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가 산업전문가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비전문가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Krishnan(2003)은 산업전문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피감사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을 비교하였다. 산업-연도별 감사법인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측정하여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전문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피감사기업이 비전문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피감사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더 작았다. 이와 유사하게 Balsam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표본을 Big4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전문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비전문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에 비해 더 작았으며, 이익반응계

수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전문가 감사인의 이익반응계수가 크다는 것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이익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본시장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설 설정

1) 회계일관성의 비교가능성과의 관계

서로 다른 두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비교가능하다는 것은 이 두 회계시스템이 동일한 경제적인 사건을 동일한 회계수치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e Franco et al. 2011). 즉, 횡단면 비교가능성은 두 상이한 기업이 유사한 경제적인 사건을 재무제표에 유사하게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계열 비교가능성은 동일한 기업이 유사한 경제적인 사건을 두 상이한 기간에 걸쳐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투자대안이 존재할 때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이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서로 비교가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FASB는 재무제표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질적인 속성의 하나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가능성은 특정 재무제표가 어떤 벤치마크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할 때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가능성은 동일 기업 내에서 상이한 기간 사이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동일 기업 내에서의 상이한 기간의 회계정보가 갖는 비교가능성을 일관성(consistency)으로 부른다.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를 수 있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26은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의 회계일관성이 높다고 해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동일한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의 회계수치와 반드시 비교가능

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사건을 회계수치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두 기업이라도 각 기업 내에서 이 상이한 방법을 매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각각의 기업이 높은 회계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기업 내 회계일관성이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높은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투자자의 정보처리비용을 줄여 주므로 자본조달비용을 경감시켜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어 높은 회계일관성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증조사 사안에 해당된다. 두 속성이 모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둘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현재 까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이 두 속성의 관계를 실증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가설 1a] 회계정보의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은 회계일관성과 체계적 관련이 없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가설 1b] K-IFRS 도입은 횡단면적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동일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가 회계일관성에 미치는 영향

횡단면 비교가능성의 측정치를 De Franco et al.(2011) 등이 제시한 후 Francis et al.(2013)은 감사인의 특성과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감사인들은 저마다 고유한 업무특성이 있으므로 비록 다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감사인의 특성이 이들 상이한 기업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이 예측에 일치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Francis et al.(2013)의 감사인의 특성에 대한 통찰은 회계일관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일한 감사인이 한 기업을 계속감사하면 매 기간마다 해당 감사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회계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감사기간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회계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증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기업을 하나로 특정하면 동일 감사인의 효과는 이 기업내의 상이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감사인이 여러 기간에 걸쳐 계속감사를 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해 회계일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예측은 특정 감사인이 동일한 기업을 계속감사할 때 중요성 기준이나 감사업무 절차, 품질관리 기준 등이 전 기간에 걸쳐 대체로 일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루어 판단하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가설 2a]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과 상이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회계일관성은 차이가 없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이 계속감사를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당 감사인이 고품질감사인인지 여부가 회계일관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감사인의 품질이 피감사기업의 회계일관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Big4나 산업전문가감사인 등 고품질감사인은 내부 전문인력 및 법인 내 심리실 등 감사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인해 업종에 고유한 회계기준과 이들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non-Big4나 비전문가감사인에 비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품질감사인은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연도별로 수익인식 시점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은 고품질감사인과

회계일관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회계기준의 위배는 아니다. 감사인은 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적정 외의 의견(modified opinion)을 제시할 의무가 있지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재량을 사용한 결과인 회계일관성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방면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감사인의 품질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는 실증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가설 2b] 고품질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의 회계일관성은 고품질감사인 외의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의 회계일관성과 차이가 없다.

Ⅲ. 연구설계

1. 연구표본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7년에 걸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들을 표본에 포함하였다.

-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 2) 12월 결산기업
- 3)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4)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TS2000)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5) 회계일관성 및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치 산출을 위한 추가자료가 Kis-Value에서 추출 가능한 기업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표본은 9,717 기업-연도이다. 횡단면적 비교가능성 측정치는 De Franco et al.(2011)과 마찬가지로 직전 16분기 순이익-주가 관계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추정한 후 16분기 이상 비교수치가 존재하는 기업쌍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만 측정할 수 있었고 그 표본수는 7,482 기업-연도였다. 또한 고품질감사인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연구목적상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계속감사를 받은 피감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5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에서 앞의 4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이 계수를 사용하여 일관성 측정치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표본은 5년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들로만 구성하였다.

2.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

1) 회계일관성의 추정

De Franco et al.(2011)은 기업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한 기업에 발생한 경제적인 사건(주가)이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한 회계수치(순이익)로 전환되는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 개념을 동일한 기업의 상이한 기간에 적용하면 특정 기업내에서 기간 사이의 일관성은 이 기업의 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인 사건이 다른 기간에도 동일한 회계수치로 전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특정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상이한 기간 사이에 일관성을 갖는다면 이 기업의 특정 기간에 일어난 경제적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른 기간에 일어났더라도 이 두 기간이 비슷한 회계수치를 보고할 것이다. 기간 사이의 회계일관성에 대한 이와 같은 추정은 선행연구에서 특정 회계정책이나 추정의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일관성을 평가했던 것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추정이다.

De Franco et al.(2011)은 기업의 회계수치의 대용치인 당기순이익을 경제적 사건의 순효과의 대용치인 주가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특정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경제적인 사건의 순효과를 회계수치로 변환하는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기업 사이의 회계시스템의 유사성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i 기업의 과거 16분기 주가수익률(*Return*)과 이익(*Earn*)을 회귀분석하여 그 계수값을 추정한다($\hat{\alpha}$ 와 $\hat{\beta}$). 이 두 계수 추정값은 i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보고이익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추정한 계수와 기업 i 의 당기 주가수익률을 결합하면 기업 i 에 대한 당기의 예상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De Franco

et al.(2011)은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회계시스템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하였다: (1) 기업 i와 j의 회계시스템이 유사하다면 기업 j에 기업 i와 동일한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j는 i와 유사한 회계이익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2) 기업 i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 j의 예상이익은 기업 i의 주가수익률과 기업 j의 과거 이익-주가수익으로부터 추정된 계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3) 동일한 사건(즉, 기업 i의 주가수익률)에 대한 기업 i와 j의 예상이익의 차이가 적을수록 두 기업의 회계시스템은 비교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해석편의상 클수록 더 높은 비교가능성을 의미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이 두 예상이익의 차이의 절댓값에 (-1)을 곱한 것이 i-j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다 (식 1). 한편, 이런 수많은 기업쌍의 비교가능성 측정치로부터 i기업의 연도별 전반적인 비교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i기업과 동일 산업-연도에 속한 기업들 간 비교가능성 측정치의 평균값을, 둘째, 위 측정치의 중간값을 i기업의 t연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두 가지 대용치로 사용한다(각각 $COMPARABILITY_{it}(a)$, $COMPARABILITY_{it}(b)$).

$$\begin{aligned}
 Earn_{it} &= \alpha_i + \beta_i Return_{it} \\
 E(Earn_{iit}) &= \hat{\alpha}_i + \hat{\beta}_i Return_{it} \\
 E(Earn_{ijt}) &= \hat{\alpha}_j + \hat{\beta}_j Return_{it} \\
 Comparability_{ijt} &= (-1) \times Abs[E(Earn_{iit}) - E(Earn_{ijt})] \quad (\text{식 1})
 \end{aligned}$$

i, j는 기업, t는 분기말을 의미한다

$Earn_{it}$ = i기업의 t분기 당기순이익;

$Return_{it}$ = i기업의 t분기 주가수익률;

$COMPARABILITY(a)$ = i기업과 동일 산업-연도에 속한 기업들(j,k,l...) 간 비교가능성 측정치의 평균값

$COMPARABILITY(b)$ = i기업과 동일 산업-연도에 속한 기업들(j,k,l...) 간 비교가능성 측정치의 중간값

여기서 E 는 예상값을, Abs 는 절댓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초점은 특정 기업 회계시스템의 시계열 일관성이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De Franco et al.(2011)의 방법을 변경하였다. (1) 우선 기업 i의 과거 16분기 주가수익률($Return$)과 이익($Earn$)을 회귀분석하여 절편과 독립변

수의 계수값을 추정하고($\hat{\alpha}$ 와 $\hat{\beta}$), (2) 이렇게 추정한 계수와 기업 i 의 당기 주가수익률을 결합하여 기업 i 에 대한 당분기의 예상이익을 계산한 후, (3) 이 예상치를 기업 i 가 당 분기에 공시한 실제이익과 비교하여 그 차이의 절댓값을 계산한다. 이 수치는 기업 i 의 당분기($t+1$)의 회계시스템이 과거 16분기의 회계시스템과 일관성이 있다면 관찰되었을 분기이익과 실제 공시된 분기이익의 차이로서 그 값이 작을수록 기업 i 의 회계일관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e Franco et al.(2011)과 같이 이 값에 (-1)을 곱하여 값이 증가할수록 일관성 수준이 높아지도록 조정하였다. 즉, 회계일관성 측정치는 아래의 (식 2)와 같이 도출되었다.

$$\begin{aligned} Earn_{it} &= \alpha_i + \beta_i Return_{it} \\ E(Earn_{it+1}) &= \hat{\alpha}_i + \hat{\beta}_i Return_{it+1} \\ CONSISTENCY_{it+1} &= (-1) \times Abs[E(Earn_{it+1}) - (Earn_{it+1})] \end{aligned} \quad (\text{식 2})$$

i 는 기업, t 는 분기말을 의미한다;

$Earn_{it}$ = i 기업의 t 분기 이익;

$Return_{it}$ = i 기업의 t 분기 주가수익률;

여기서 E 는 예상값을, Abs 는 절댓값을 나타낸다.

한 연도는 네 개의 분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정 연도의 회계시스템이 해당 기업의 과거 4년간의 회계시스템과 비교할 때 일관성을 가지는 정도는 이 연도에 포함된 네 개의 분기 각각의 회계일관성 수치의 평균으로 대용하였다 ($CONSISTENCY$).

2) 산업전문성의 측정

본 연구는 고품질 감사인의 대용치로 Big4 감사인과 산업전문가 감사인을 사용한다. Big4 감사인은 International Big4 accounting firm과 제휴한 국내법인으로 정의된다. 산업전문감사인은 특정 산업 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감사인들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전문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총자산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산출한 연도-산업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감사인으로 측정하였다.

$$MKTSHR_{ik} = \frac{\sum_{j=1}^{J_{ik}} \sqrt{TA_{ijk}}}{\sum_{i=1}^{I_k} \sum_{j=1}^{J_{ik}} \sqrt{TA_{ijk}}} \quad (\text{식 } 3)$$

위의 식에서 i, j, k 는 각각 감사인, 피감사기업, 산업을 나타낸다. TA (Total Assets)는 고객기업의 총자산을 의미한다. 총자산의 단순 합계가 아닌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은 산업전문성이 총자산에 체감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Hogan and Jeter 1999; Mayhew and Wilkins 2003).

3) 연구 모형

(1) 가설 1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a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CONSISTENCY = & \beta_0 + \beta_1 COMPARABILITY + \beta_2 SIZE \\ & + \beta_3 LEV + \beta_4 ROA + \beta_5 CFO + \beta_6 GROWTH \\ & + \beta_7 INVREC + \beta_8 TACC + \beta_9 CR + \beta_{10} LARGE \\ & + \beta_{11} FOREIGN + \beta_{12} BIG + \beta_{13} MARKET + \beta_{14} LOSS \\ & + Industry + Year + \mu_{i,t} \end{aligned} \quad (\text{식 } 4)$$

$CONSISTENCY$ = yearly mean value of accounting consistency estimated for each quarter

$COMPARABILITY(a)$ = mean value of comparability measure between firm i and firms in the same industry-year

$COMPARABILITY(b)$ = median value of comparability measure between firm i and firms in the same industry-year

$SIZE$ =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LEV = total liabil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ROA = net income divided by lagged total assets;

CFO = operating cash flow divided by lagged total assets

$GROWTH$ = total assets growth;

$INVREC$ = sum of inventory and accounts receivables divided by total assets;

$TACC$ = total accruals: $(NI - \text{operating cash flow})/\text{lagged total assets}$

CR = current ratio: current assets divided by current liabilities

$LARGE$ = percentage of share of large shareholders

FOREIGN = percentage of share of foreign shareholders

BIG = equals one for Big4 auditors, and zero otherwise;

MARKET = equals one if the client belongs to KOSPI market in KRX, and zero otherwise;

LOSS = equals one for loss reporting firm, and zero otherwise;

위의 (식 4)에서 종속변수는 회계일관성(*CONSISTENCY*)이다. 이는 각 분기별로 추정된 회계일관성의 평균값(즉, 1~4분기 일관성 측정치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관심변수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으로, 이 변수의 계수인 β_1 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할수록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체계적 양의 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가설 1b), (식 4)에 IFRS 도입 전후 기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인 *POST*²⁾와 *COMPARABILITY* 간의 교호항(*POST*×*COMPARABILITY*)을 추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회계정보의 품질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구성하였다(Becker et al. 1998; De Franco et al. 2011; Francis et al. 2013 등). 우선, 기업의 규모(*SIZE*)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기업 고유의 특성(복잡성, 정보비대칭, 인적자원 등)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부채비율(*LEV*)은 자본구조를 통제하기 위함 포함하였다. 당기 영업성과(*ROA*), 영업현금흐름(*CFO*)은 기업의 영업성과를, 자산성장율(*GROWTH*)은 기업 수명주기 단계와 투자기회를 각각 대용한다. 영업환경의 복잡성은 자산대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INVREC*)으로 대용된다. 본 연구의 모든 회귀분석상의 통계량은 피감사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clustering)된 값이다.

(2) 가설 2a의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동일 감사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연속감사가 회계일관성을 제고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본 중 4연속연도에 걸쳐서 동일한 감사인을 고용한 소표본을 추출하고 이 4연속연도에 속한 16 분기를 사용하여 앞서 제시한 일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계수를 규명한 후, 이 소표본에서 5년째에 동일한 감사인을 유지한 기업과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한 그룹의 5년

2) IFRS 전면도입 연도인 2011년 이후이면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째 회계 일관성을 비교한다.

$$CONSISTENCY = \beta_0 + \beta_1 SameAud + Controls + Industry + Year + \mu \quad (\text{식 } 5)$$

SameAud =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he company has the same auditor as the last 4 years in the fifth year, and zero otherwise

(3) 가설 2b의 검증

가설 2b는 Big4와 산업전문가감사인이 non-Big4와 비전문가감사인에 비해 피 감사기업 회계정보의 일관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 가설은 연속 5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에서 4 연속년도에 속한 16 분기를 사용하여 앞서 제시한 일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계수를 도출한 후 5년째 자료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계산하고 이 일관성 측정치가 5년동안 감사를 한 감사인이 Big4 또는 산업전문가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검증한다.

$$CONSISTENCY = \beta_0 + \beta_1 BIG(ISA) + Controls + Industry + Year + \mu \quad (\text{식 } 6)$$

ISA =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he company is audit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 firm, and zero otherwise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1]은 본 연구의 표본구성과정을 제시한다. 2004부터 2017년도 사이에 상장사 기업-연도는 총 27,929개 이다. 이중 재무자료와 통제변수로 포함된 지분을 자료와 일관성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관측치를 제거하면 최종표본에 포함된 기업-연도는 9,717개이다.

[표 2]는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상장기업의 4분기 평균으로 측정 한 회계일관성(*CONSISTENCY*)은 -0.02의 평균값(중간값 -0.01)을 가진다. 또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두 가지 측정치 모두 평균 -0.02의 값

을 가진다. 표본에서 5사업연도 연속으로 동일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은 관측치(*SameAud*)의 비율은 약 50%로 나타났다. 한편,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은 각각 36% (중간값 29%)와 7% (중간값 2%)였고, Big4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은 관측치의 비율은 약 52%, 산업전문가 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비율은 약 29%였다.

[표 1] Sample selection procedure

Initial observations from 2004 to 2017	27,929
Less:	
Missing financial data	(1,817)
Missing shareholders(e.g., largest, foreign) data	(12,815)
Missing data regarding consistency variable	(3,580)
Final observations	9,717

[표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ean	Std.Dev	Q1	Median	Q3
<i>CONSISTENCY</i>	9,717	-0.02	0.03	-0.02	-0.01	-0.01
<i>COMPARABILITY(a)</i>	7,482	-0.02	0.01	-0.02	-0.02	-0.01
<i>COMPARABILITY(b)</i>	7,482	-0.02	0.01	-0.02	-0.01	-0.01
<i>SameAud</i>	9,717	0.50	0.50	0.00	0.00	1.00
<i>SIZE</i>	9,717	25.85	1.32	24.95	25.58	26.45
<i>LEV</i>	9,717	0.41	0.20	0.25	0.41	0.56
<i>ROA</i>	9,717	0.02	0.11	-0.00	0.03	0.07
<i>CFO</i>	9,717	0.05	0.10	-0.00	0.05	0.10
<i>GROWTH</i>	9,717	0.09	0.25	-0.02	0.05	0.15
<i>INVREC</i>	9,717	0.28	0.15	0.17	0.27	0.38
<i>TACC</i>	9,717	-0.03	0.10	-0.07	-0.02	0.02
<i>LARGE</i>	9,717	0.36	0.29	0.09	0.29	0.59
<i>FOREIGN</i>	9,717	0.07	0.12	0.00	0.02	0.08
<i>CR</i>	9,717	2.40	2.87	1.02	1.52	2.62
<i>MARKET</i>	9,717	0.46	0.50	0.00	0.00	1.00
<i>BIG</i>	9,717	0.52	0.50	0.00	1.00	1.00
<i>ISA</i>	9,709	0.29	0.45	0.00	0.00	1.00
<i>LOSS</i>	9,717	0.26	0.44	0.00	0.00	1.00

2. 가설검증 결과

1) 가설 1의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 1a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식 4)의 회귀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표 3]에 따르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은 회계일관성(*CONSISTENCY*)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수치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간 간 비교가능성(회계일관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기업은 그 회계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가짐을 시사한다.

[표 3]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CONSISTENCY			
	(1)	(2)	(3)	(4)
<i>POST</i>			0.075** (2.26)	0.090* (1.85)
<i>COMPARABILITY(a)</i>	1.537*** (7.63)		1.415*** (7.55)	
<i>COMPARABILITY(b)</i>		1.380*** (7.78)		1.286*** (7.71)
<i>POST</i> × <i>COMPARABILITY(a)</i>			0.042 (0.18)	
<i>POST</i> × <i>COMPARABILITY(b)</i>				0.046 (0.39)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Year fixe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Industry fixe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 of obs.	7,482	7,482	7,482	7,482
Adj. R ²	0.315	0.317	0.322	0.322

주 1) *, **, and *** indicate two-tail significance at the 0.1, 0.05, and 0.01 level, respectively.

주 2) All the continuous variables are winsorized at the top and bottom one-percentile.

한편 가설 2b의 검증결과는 모형 3과 모형 4에 제시된 *POST* × *COMPARABILITY*

의 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모형에서 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OST*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은 IFRS 도입 이후 국내기업들의 회계일관성이 평균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를 IFRS 도입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결해보면(예: 곽영민과 백정한, 2015), IFRS 도입이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에 대칭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둘 간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가설 2의 검증결과

가설 2a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회계일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 이 특성이 다른 변수가 일관성에 대해 가지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4]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inuous audits and consistenc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i>CONSISTENCY</i>
<i>SameAud</i>	0.002** (2.08)
<i>Controls</i>	Included
<i>Year fixed</i>	Included
<i>Industry fixed</i>	Included
# of obs.	5,792
Adj. R ²	0.174

주 1) *, **, and *** indicate two-tail significance at the 0.1, 0.05, and 0.01 level, respectively.

주 2) All the continuous variables are winsorized at the top and bottom one-percentile.

[표 4]에서 *SameAud*의 계수는 0.002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앞선 4년과 동일한 감사인이 5년째에도 감사를 한 재무제표는 5년째에 앞선 4년과 다른 감사인이 감사를 한 재무제표에 비해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Francis et al.(2013)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하게 동일한 감사인은 비교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건을 회계수치로 전환하는 성향에 있

어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이 특성을 동일 기업에서 상이한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고유특성이 피감사기업의 회계일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설 2b는 고품질의 감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Big4 및 산업전문가감사인과 회계일관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측이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속 5년 동안 동일한 Big4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과 동일한 non-Big4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의 비교에서 Big4의 계수는 $-0.0002(t\text{-값}=-0.19)$ 으로 경제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다. 이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의 계속감사가 회계일관성을 높인다고 해도 그 효과에 있어 Big4와 non-Big4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산업전문가 감사인 더미를 모형에 포함해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2에서도 ISA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아(-0.003 , $t\text{-값}=-1.39$) 고품질의 감사인이 회계일관성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동일감사인이 특정기업을 계속감사하면 회계일관성은 높아지지만, 해당 감사인이 Big4에 속하거나 산업전문가라고 해서 회계일관성의 향상에 증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type and consistenc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i>CONSISTENCY</i>	
	(1)	(2)
<i>BIG</i>	-0.0002 (-0.19)	0.001 (0.50)
<i>ISA</i>		-0.003 (-1.39)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Year fixed</i>	Included	Included
<i>Industry fixed</i>	Included	Included
# of obs.	4,850	4,845
Adj. R ²	0.173	0.172

주 1) *, **, and *** indicate two-tail significance at the 0.1, 0.05, and 0.01 level, respectively.

주 2) All the continuous variables are winsorized at the top and bottom one-percentile.

3. 내생성 통제

감사인 선임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가 회계일관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계속감사 자체의 효과이기보다 동일감사인에게 계속감사를 받는 성향을 가진 피감사기업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된 효과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향점수대응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5사업연도 연속으로 동일감사인을 선임한 피감사기업(*SameAud* = 1)과 그렇지 않은 피감사기업(*SameAud* = 0)을 회귀 분석에 사용된 모든 통제변수를 기준으로 매칭한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의 [패널 A]는 매칭 전과 후의 5사업연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특성 차이를 보여주는 단일변량분석 결과이다. [패널 A]를 보면 매칭 전에는 두 집단의 통제변수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매칭 후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매칭이 통계적으로 적정함을 의미한다.

[표 6] The results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
[Panel A: Univariate tests (DV=CONSISTENCY)]

	Before matching			After matching		
	SameAud (N=4,850)	non-SameAud (N=4,867)	t-value in Diff	SameAud (N=2,680)	non-SameAud (N=2,639)	t-value in Diff
<i>SIZE</i>	25.852	25.839	-0.49	25.841	25.856	0.43
<i>LEV</i>	0.403	0.424	5.31***	0.414	0.414	0.10
<i>ROA</i>	0.022	0.017	-2.23**	0.019	0.021	0.38
<i>CFO</i>	0.051	0.046	-2.65***	0.049	0.050	0.32
<i>GROWTH</i>	0.076	0.101	4.92***	0.086	0.086	-0.08
<i>INVREC</i>	0.286	0.281	-1.52	0.284	0.286	0.35
<i>TACC</i>	-0.029	-0.029	0.12	-0.030	-0.029	0.22
<i>LARGE</i>	0.356	0.355	-0.22	0.352	0.357	0.58
<i>FOREIGN</i>	0.075	0.062	-5.45***	0.067	0.067	0.11
<i>CR</i>	2.482	2.320	-2.78***	2.418	2.406	-0.15
<i>MARKET</i>	0.446	0.482	3.65***	0.468	0.462	-0.38
<i>BIG</i>	0.559	0.486	-7.27***	0.520	0.525	0.34
<i>LOSS</i>	0.249	0.271	2.53**	0.257	0.254	-0.30

[Panel B: Results using the PSM sample]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Consistency</i>
<i>SameAud</i>	0.003*** (2.68)
<i>Controls</i>	Included
<i>Year fixed</i>	Included
<i>Industry fixed</i>	Included
# of obs.	5,319
Adj. R ²	0.174

주 1) *, **, and *** indicate two-tail significance at the 0.1, 0.05, and 0.01 level, respectively

주 2) All the continuous variables are winsorized at the top and bottom one-percentile

[패널 B]는 성향점수에 따라 매칭된 표본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매칭 후에도 5사업연도 동일감사인(*SameAud*)과 회계일관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여전히 발견된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가 내생성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V.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계와 규제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회계일관성을 기업-연도별로 측정한 후 이렇게 측정한 회계일관성이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비교가능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조사하고, 또한 이 측정치를 바탕으로 감사인 관련 정보 즉, 동일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 여부나 감사인의 품질이 회계일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회계일관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 타기업과 비교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일수록 일관성 있는 회계시스템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감사인

으로부터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회계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감사인인 계속감사를 하면 감사인특성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재무제표가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감사를 한 감사인이 고품질감사인인지 여부는 회계일관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회계일관성의 핵심요소는 동일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이지 해당 감사인의 품질은 회계일관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 미래산업에 대한 시사점

회계정보의 일관성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이론 및 실무 양면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질적 특성이지만 그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회계일관성의 새로운 측정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계일관성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학계의 후속연구와 산업계의 실무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영민, 백정한, 2015,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3(3), 55-83.
- 이준규, 신승묘, 200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장반응, *세무학연구*, 20(3), 35-55.
- 최승욱, 2016, 동일한 감사인의 고객기업간 재무제표가 서로 유사한가? 감사법인과 감사파트너를 이용한 분석, *회계저널*, 25(2), 239-273.
- Balsam, S., J. Krishnan, and J. S Yang. 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2), 71-97.
- Balver, R. J., B. McDonald, and R.E. Miller. 1988, Underpricing of new issues and the choice of auditor as a signal of investment banker reput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 605-622.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 Blackwell, D., T. R. Noland, and D. B. Winters. 1998, The value of auditor assurance: Evidence from loan pric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57-70.
- Chu, L., Church, B. K., and Zhang, P. 2012, Does Long Tenure Erode Auditor Independence?, In CAAA Annual Conference
- Chung, H., and Kallapur, S. 2003,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8(4), 931-955.
- Davis, L. R., Soo, B. S., and Trompeter, G. M. 2009, Auditor tenure and the ability to meet or beat earnings forecasts,

-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2), 517-548.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83-199.
- De Franco, G., S. P. Kothari, and R. Verdi. 2011,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9(4), 895-931.
- Dichev, I. D., Graham, J. R., Harvey, C. R., and Rajgopal, S. 2013, Earnings quality: Evidence from the fiel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6, 1-33.
- Dunn, K., and B. W. Mayhew. 2004,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lient disclosure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9, 35-58.
- Francis, J., E. Maydew, and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 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8, 17-34.
- Francis, J. R., Pinnuck, M. L., and Watanabe, O. 2013, Auditor style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89(2), 605-633.
- Gul, F. A., Fung, S. Y. K., and Jaggi, B. 2009, Earnings quality: Some evidence on the role of auditor tenure a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7(3), 265-287.
- Healy, P. M., Kang, S. H., and Palepu, K. G. 1987, The effect of accounting procedure changes on CEOs' cash salary and bonus compens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9(1), 7-34.
- Hogan, C. E., and D. C. Jeter. 1999, Industry specialization by auditor,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8, 1-17.
- Keating, A. S., and Zimmerman, J. L. 1999, Depreciation-policy

- changes: tax, earnings management, and investment opportunity incentiv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8(3), 359-389.
- Krishnan, G. V. 2003, Does Big 6 Auditor Industry Expertise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17, 1-17.
- Lennox, C., Z. Wang, and X. Wu. 2018, Earnings management, audit adjustments, and the financing of corporate acquisitions: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5, 21-40.
- Li, D. 2010, Does auditor tenure affect accounting conservatism?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9(3), 226-241.
- Mayhew, B. W., and M. S. Wilkins. 2003,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Evidence from fees charged to firms going public,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2), 33-52.
- Myers, J. N., Myers, L. A., and Omer, T. C. 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3), 779-799.
- Peterson, K., Schmardebeck, R., and Wilks, T. J. 2015, The earnings qual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ffects of accounting consistency, *The Accounting Review*, 90(6), 2483-2514.
- Pittman, J, and S. Fortin. 2004, Auditor choice and the cost of debt capital for newly public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7, 113-136.

Auditor Characteristics and Accounting Consistency

Jeong-Taek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1) whether time-series accounting consistency of a firm is related to cross-sectional comparability,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consisten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auditors. To do so, we redefine the accounting consistency as "the extent to which identical economic events occurring in different periods for a particular company are represented by similar accounting figures". The findings using the data of Korean publicly-listed companies from 2004 to 2017 are as follows. Firstly, accounting consistency and cross-sectional comparability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This suggests that companies that consistently report financial figures across multiple periods produce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of peer companies. Secondly, companies audited by the same auditor tend to exhibit higher levels of accounting consistency compared to those companies audited by different auditors. Lastly, whether the auditor is a high-quality auditor (e.g., Big4 or industry specialist auditor) has no systematic impact on accounting consistency. Overall,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key determinants of time-series accounting consistency is whether the same auditor have conducted continuous audits, rather than the quality of the auditor.

Key word : audit quality, accounting consistency,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jtkim01@dankook.ac.kr